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173>

JCCT 2024-5-21

## '디지털 분석 도구를 활용한 문학 연구 :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를 중심으로

### Literary Research Using Digital Analysis Tools: A Case Study of 『Dangerous Liaisons』

류선정, 유은순

**RYU Sun-Jung\*, YOU Eun-Soon\*\***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서간체 형식의 18세기 리베르탱 소설의 결작으로 꼽히는 『위험한 관계』를 대상으로 '리베르티나주(libertinage)'를 둘러싼 이성과 감정의 문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Voyant과 LIWC 22의 사용 단어 빈도수 분석을 통해 리베르티나주가 'love'와 'time'과 같은 키워드로 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Voyant의 'Contexts' 기능을 통해 발몽이 투르벨 부인에게 보낸 편지들과 메르퇴유 부인에게 보낸 편지들은 모두 'love'를 중심 테마로 하고 있지만, 전자에서는 감정적 어휘들이, 후자에서는 전략적 어휘들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메르퇴유가 보낸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는 'time'으로서 'love'보다 빈도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LIWC 22를 이용하여 주요 인물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대상으로 인물별, 각부별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와 '감정적 어조(emotional tone)'를 각각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위험한 관계』가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시대 때 배척의 대상이었던 '감정'이라는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작품임을, 그리고 루소의 『신 엘로이즈』처럼 낭만주의를 예고하는 작품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유의미할 것이다.

**주요어** : 디지털 인문학, 『위험한 관계』, 리베르티나주, LIWC, Voyant tools

**Abstract** We This study aim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theme of 'libertinage' and the associated issues of reason and emotion in 『Dangerous Liaisons』, a novel considered a masterpiece of libertine literature and an epistolary novel of the 18th century, using digital analysis tools.

First, based on the frequency analysis of word usage using Voyant and LIWC 22, we confirmed that libertinage is manifested with keywords such as 'love' and 'time'.

With Voyant's 'Contexts' feature, it was found that the letters sent by Valmont to Madame de Tourvel and those sent by Madame de Merteuil both have 'love' as the central theme. However, emotional vocabulary was higher in the former, whereas strategic vocabulary was more prevalent in the latter. Additionally, it was observed that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 in the letters sent by Madame de Merteuil is 'time', with a higher frequency than 'love'.

Thirdly, using LIWC 22, we measured the analytical thinking and emotional tone of the letters exchanged by the main characters, and analyzed how these values changed according to the chapters. Through these analyses, we confirmed that this novel, alongside Rousseau's "New Eloise," anticipates romanticism by embracing the theme of 'emotion,' which was rejected by 18th-century Enlightenment ideals.

**Key words** : Digital Humanities, 『Dangerous Liaisons』, libertinage, LIWC, Voyant tools

\*정회원, 단국대학교 유럽중남미학부 프랑스학전공 정교수 (제1저자)Received: March 1, 2024 / Revised: April 13, 2024

\*\*정회원, 성균관대학교 실감미디어공학과 지능형 멀티미디어 연구Accepted: May 5, 2024

센터 외부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네트워크과학 연구\*\*Corresponding Author: tesniere@naver.com

실 연구원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1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5일

Sungk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Immersive Media Engineering, Center for Multimedia Intelligence, Researche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 Science Lab, Researcher

## 1. 서론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문학 연구에 디지털 분석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강영돈은 디지털 도구 기반의 영미 문학 교육방안을[1], 민진영은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마르셀 프루스트 Marcel Proust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La Recherche du temps perdu』 (1913-1927)를 분석하였다[2].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이 연구 성과는 오랫동안 정성적 접근이 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방법론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계량적 접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지배하는 연구 환경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통해 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기대감과 그것에 대한 반감이 교차하는 현시점에서 문학적 주제가 어떻게 계량적 접근을 통해 연구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분석 도구인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LIWC)’와 ‘Voyant Tools’을 활용하여 18세기 프랑스의 풍속도를 집약적으로 형상화한 피에르 쇼테를로 드 라클로 Pierre Choderlos de Laclos의 소설 『위험한 관계 Les liaisons dangereuses』 (1782)를 분석하고자 한다. 라클로가 이 소설의 초판 서문에 루소의 말을 빌어 “대도시에서는 재미난 볼거리가 필요하고, 타락한 국민에게는 소설이 필요하다. 나는 나의 시대의 풍속을 보았고, 그래서 이 편지들을 발간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편지들을 태워버려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인가!”[3]라고 썼듯이, 이 소설은 당시의 자유분방한 연애 풍속을 신랄하게 비판한 대표적인 서간체 소설이자 리베르탱(libertin) 소설의 걸작으로 꼽힌다. 리베르탱은 16세기에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 이단자, 자유사상가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17세기에는 육체적 쾌락과 방탕을 탐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추가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 ‘쾌락을 추종하는 방탕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한정되었다. 18세기에 만연했던 리베르티나주(libertinage) 역시 프랑스의 타락한 사교계에서 성행한 ‘성적 방종과 자유주의 사상’을 가리킨다. 이 소설이 다른 리베르탱 소설보다 특별한 점은 고도의 심리진과 연애 기술을 통해 지배와 통제의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

하는 척 연기를 하여 상대방을 유혹하는 기술로서 리베르티나주를 세밀하게 보여준다. 소설 속의 주인공 메르퇴유 후작부인 La marquise de Merteuil과 발몽작은 Le vicomte de Valmont은 겉으로 예의범절을 지키지만, 사랑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목표로 하는 리베르탱의 화신들이다. 본 연구는 먼저 『위험한 관계』 속의 인물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작품 속에서 리베르티나주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리베르탱의 이성과 감정의 문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인간상과 관련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심리측정(psychometric) 도구인 LIWC와 빈도 기반의 Voyant을 활용할 것이다. LIWC를 선택한 이유는 『위험한 관계』가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인물들의 내밀하고 복잡한 심리를 표현한 심리소설의 백미로 꼽히는 만큼, 해당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LIWC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될 Voyant은 단어의 빈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어를 추출하는 데 유용하다. 이 도구들이 갖는 기능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학 분석에 활용된 국내의 사례는 많지 않다. LIWC의 경우 국내에서는 임수연(2023)이 강연자료를 통해 성별에 따른 리더의 언어적 특성을 비교하였고[4], 이지영, 김명연(2011)은 최고 경영자의 연설문에서 사용된 심리적 단어와 조직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5]. 또한 상담 자료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분류한 연구도 발표되었다[6]. 국외에서는 외향적 또는 내향적 성격과 감정어 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사례[7-9]가 다수 있으며 환자들이 작성한 글에서 인칭대명사 ‘I’의 높은 빈도는 그들이 겪은 내면의 고통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10]. 이처럼 일상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심리와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 가운데, 중국 작가 루야오의 소설 『평범한 세계 Ordinary World』 속 주인공들의 대사를 LIWC로 측정하여 그들의 성격을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으로 분류한 연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11]. 한편 Voyant 도구를 문학 작품에 활용한 국내 연구로는 최석훈(2024)과 윤서영(2003)이 있다. 최석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의 희곡 『리처드 3세 Richard II』를 분석한 결과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해당 작품의 주제임을 제시하였다[12]. 윤서영은 대니얼 디포 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와 그것을 다시 쓴 존 콧시John M. Coetzee의 『포 Foe』의 어휘 빈도와 어휘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13].

국외에서는 교육적 목적에서 문학 분석에 Voyant을 활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유용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14-15], 데이비드 에버쇼프David Ebershoff의 소설 『대니쉬 걸Danish Girl』에서 반복되는 단어와 구문을 추출하여 등장인물의 기억의 문제를 탐구한 사례도 있다[16]. Voyant을 활용한 국내의 연구 모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연구를 위해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험한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겉으로 우아하고 점잖은 척하며 멋진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리베르탱과 그들의 이면에 문란하고 방탕한 모습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리베르탱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이성과 감정의 문제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디지털 도구를 통한 계량적 분석은 그동안 정성적 접근만을 통해 해당 주제들을 다룬 연구들과 차별화 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17]는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II. 분석 텍스트 및 디지털 분석 도구

### 1. 분석 텍스트: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위험한 관계』는 등장인물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엮은 서간체 소설로서 13명의 인물이 주고받은 175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편지를 가장 많이 교환하는 주요 인물은 발몽과 메르퇴유 부인이고 그밖에 투르벨 법원장 부인La présidente de Tourvel, 세실 Cécile, 당스니 기사Le chevalier Danceny, 볼랑주 부인Madame de Volanges, 그리고 로즈몽드 부인Madame de Rosemond도 편지를 자주 교환한다. 발몽과 메르퇴유는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리베르탱들로서,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편지를 통해 공모하고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우며 주변 인물들을 지배한다. 리베르탱에게 사랑은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을 유혹하고 나면 사랑을 끝내야 한

다. 즉 그들에게 유혹과 육체적 쾌락이 사랑이라는 감정적 관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메르퇴유 부인은 옛 연인 제르쿠르에게 복수하기 위해 발몽에게 제르쿠르의 정혼자로 수녀원에서 갓 나온 스티치너 세실을 유혹하라는 제안을 한다. 발몽은 그녀에게 세실은 너무 쉬운 상대라고 말하며, 리베르탱으로서의 명예를 위해 신앙심 깊고 정숙하기로 소문난 투르벨 부인을 유혹하려는 계획을 알린다. 그러자 메르퇴유 부인은 투르벨 부인을 정복하고 그 증거를 가져오면 그의 것이 되겠다고 한다. 발몽은 메르퇴유 부인과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운 다음, 냉철한 판단력과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세실뿐만 아니라 투르벨 부인까지 유혹하고 정복하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발몽과 메르퇴유 부인은 각각 실수를 한다. 메르퇴유 부인은 발몽이 투르벨 부인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진 것을 눈치채고 질투에 사로잡힌다. 발몽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리베르탱으로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약화되는 것을, 즉 정복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르벨 부인과 헤어진다. 그러나 메르퇴유 부인은 발몽이 투르벨 부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조롱하며 그와의 약속 이행을 거절한다. 메르퇴유 부인의 의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낀 발몽은 그녀의 이중성을 만천하에 알린다. 그리고 발몽은 세실을 농락한 것이 발각되어 그녀를 사랑하는 당스니 기사와 결투하다가 죽고, 발몽의 사망 소식을 들은 투르벨 부인 역시 슬픔에 죽고 만다. 그리고 메르퇴유 부인은 발몽에게 보낸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어 사교계로부터 추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철학과 이성, 규율을 중시하던 18세기와 그 이면에서 성적 방종이라는 방식으로 왜곡되게 감정을 분출하던 리베르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주요 인물별로 주로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인지, 그것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는지 등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읽어내고 분석할 것이다.

### 2. 정량적 접근을 위한 디지털 분석 도구: LIWC, Voyant

LIWC는 199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W. 페니



와 같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긍정적 단어들이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Term	Count	Trend
1 love	161	
2 shall	145	
3 time	104	
4 little	96	
5 think	95	

그림 3. 발몽이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순위  
 Figure 3. The ranking of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in Valmont's letters

그림 4.

Term	Collocates	Count (context)
love	shall	5
love	happiness	5
love	friendship	5
love	love	4
love	friend	4
love	produce	3
love	collocate	3

의 'Collocate'  
 Figure 4. Collocate of 'love'

Voyant을 이용하여 발몽이 메르퇴유 부인에게 보낸 34통의 편지와 투르벨 부인에게 보낸 12통의 편지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메르퇴유 부인에게는 조동사 'shall'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이 'love'인 반면에, 투르벨 부인에게는 'love'라는 단어가 가장 높게 나왔다. 조동사 'shall'과 'love'는 각각 97번, 63번 사용되었다. LIWC 22의 결과는 Voyant의 결과와 약간 달랐는데, 메르퇴유 부인과 투르벨 부인에게 보낸 모든 편지에서 'love'가 가장 많이 출현했다. LIWC 22는 주제를 명사와 형용사, 동사를 중심으로 수치화하는 반면, Voyant은 모든 품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동사 'shall'은 명사나 동사처럼 내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이 아닌 문법적 기능을 하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주제어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조동사 'shall'을 제외하면 'love'라는 단어가 가장 빈도가 높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발몽이 투르벨과 메르퇴유 부인에게 보낸 편지들에 대한 LIWC 22의 빈도 측정 결과이다.

Word	Frequency
love	63
madam	31
heart	24
happiness	23
sentiments	18
passion	17
hope	14
pleasure	14

그림 5. 발몽이 투르벨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순위

Figure 5. The ranking of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in the letters from Valmont to Mme de Tourvel

Word	Frequency
love	88
woman	83
time	83
friend	74
give	70
letter	70
day	58
madame	55

그림 6. 발몽이 메르퇴유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순위

Figure 6. The ranking of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in the letters from Valmont to Mme de Merteuil

여기서 주목할 점은 'love'의 뒤를 이어 등장한 단어들이다. 발몽이 투르벨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들은 'heart', 'happiness', 'sentiment', 'passion'과 같이 'love'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긍정적 어휘들이다. 이에 비해 발몽이 메르퇴유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time', 'women', 'friend', 'give' 등과 같이 다소 전략적인 어휘들이다.

메르테유 부인은 총 28통의 편지에서 'time'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림 7은 Voyant의 빈도 측정 결과를, 그림 8은 단어 'time'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Contexts' 기능을 보여준다.

Term	Count
1 time	84
2 shall	81
3 love	78
4 know	78
5 make	71
6 think	70
7 little	63
8 viscount	55
9 letter	55
10 woman	49

그림 7. 메르퇴유 부인이 발몽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들의 순위

Figure 7. The ranking of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in the letters from Madame de Merteuil

Document	Left	Term	Right
미르퇴유...	necessity of it at this	time	You possess the Presidente Tourvel
미르퇴유...	yet, who will waste his	time	in making love, but never
미르퇴유...	be mild, for at this	time	I should feel no difficulty
미르퇴유...	up a fortnight of your	time	, and that you neglect every
미르퇴유...	hours with me before my	time	of seeing company. I told
미르퇴유...	effect. I was a second	time	overcome: from that instant I
미르퇴유...	to assume. In the mean	time	, my Chevalier came to my
미르퇴유...	In order to give him	time	to recover from his surprise
미르퇴유...	I was determined the whole	time	Win should be devoted to delight

그림 8. 단어 'time'이 사용된 문맥

Figure 8. The context in which the word 'time' is used

리베르탱의 사랑에 타이밍뿐만 아니라 지배와 통제

의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메르퇴유 부인이 언급한 ‘time’은 ‘necessity of it at this time. You possess the Presidente Trouvel’, ‘who will waste his time in making love, but never’ 등과 같은 맥락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발몽이 트루벨 부인을 정복하고 끝내는 시기, 전략 등과 관련된다. 즉 메르퇴유 부인은 발몽의 목표 수행 과정에 있어 조언자로서 그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읽으면서 그를 간섭하고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발몽이 트루벨 부인에게 보낸 편지들과 메르퇴유 부인에게 보낸 편지들은 모두 ‘love’를 중심 테마로 삼고 있지만, 전자에서는 감정적 어휘들이, 후자는 전략적 어휘들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메르퇴유 부인이 보낸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는 ‘time’으로서 ‘love’보다 빈도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분석적 사고 vs. 감정적 어조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발몽과 메르퇴유는 ‘이성적 사고’에 따라 주변 인물들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인물이다. 하지만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발몽은 트루벨 부인과의 관계에서 리베르탱의 차갑고 이성적인 모습보다는 감성적인 모습을 띠으로써 메르퇴유 부인에게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메르퇴유 부인은 트루벨 부인을 향한 발몽의 사랑의 감정을 간파한 후 질투에 휩싸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물들을 LIWC 22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분석적 사고’와 ‘감정적 어조’를 통해 소설 속 인물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적 사고’는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단어들의 사용을 의미하며 ‘감정적 어조’는 감정어 사용과 관련된다. 분석을 위해 먼저 7명의 주요 인물들이 각자 보낸 편지들을 분류하여 측정된 결과 그림 9와 같이 불량주 부인을 제외한 6명 모두 ‘분석적 사고’보다 ‘감정적 어조’가 더 높았다. 특히 세실은 ‘분석적 사고’가 2.44로 7명 중 가장 낮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갓 나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무구한 소녀로 당스니 기사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만, 발몽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면서 트루벨 부인과 당스니 기사처럼 희생자가 된 인물이다. 7명 중 유일하게 ‘감정적 어조’보다 ‘분석적 사고’의 수치가 높았던 불량주 부인은 18세기 타락한 귀족사회에서 도덕을 대변하는 인물로 묘사되며 트루벨 부인에게 발몽과 멀리하

라고 충고하는 인물이다. 한편 ‘감정적 어조’가 가장 높은 인물은 발몽이다. 소설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부별 ‘감정적 어조’의 수치를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트루벨 부인에 대한 발몽의 ‘감정적 어조’의 값도 변화하고 있다.

Filename	Segment	WC	Analytic	Clout	Authentic	Tone
메르퇴유 부인 편지.pdf	1	3922	24.38	48.39	47.63	41.45
발몽 편지.pdf	1	4762	30.35	31.82	57.4	42.36
트루벨 편지.pdf	1	1495	18.69	21.28	71.14	19.02
세실 편지.pdf	1	1358	2.44	11.95	77.03	31.57
당스니 편지.pdf	1	1075	17.15	39.84	65.93	26.58
발몽주 부인 편지.pdf	1	1012	27.52	43.23	38.17	12.44
로즈몽드 부인 편지.pdf	1	4920	17.05	49.9	59.75	40.16

그림 9. 인물들의 ‘분석적 사고’와 ‘감정적 어조’ 비교  
Figure 9. The characters’ ‘analytical thinking’ and ‘emotional tone’.

Filename	Segment	WC	Analytic	Clout	Authentic	Tone
1부 발몽이 트루벨에게.pdf	1	3466	24.05	23.03	61.46	25.04
2부 발몽이 트루벨에게.pdf	1	3570	18.49	44.37	60.65	48.66
3부 발몽이 트루벨에게.pdf	1	695	21.63	66.62	75.21	23.88
4부 발몽이 트루벨에게.pdf	1	996	19.08	19.18	72.32	1.42

그림 10. 트루벨 부인에 대한 발몽의 ‘감정적 어조’ 변화  
Figure 9. Emotional tone changes in Valmont towards Mme de Tourvel

2부는 37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몽이 트루벨 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5통이다. 2부에서 발몽의 ‘감정적 어조’가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은 발몽이 트루벨 부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결국 트루벨 부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트루벨 부인의 ‘감정적 어조’ 또한 2부와 3부에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부에서 트루벨 부인은 발몽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에 이르고, 로즈몽드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앙인으로서 괴로움과 죄책감을 토로한다.

Filename	Segment	WC	Analytic	Clout	Authentic	Tone
1부, 트루벨이 발몽에게.pdf	1	2339	28.66	39.3	64.58	12.98
2부, 트루벨이 발몽에게.pdf	1	2041	17.08	59.86	72.77	25.28
3부, 트루벨이 발몽에게.pdf	1	806	19.47	6.18	82.76	20.23
4부, 트루벨이 발몽에게.pdf	1	216	15.24	22.98	68.87	3.42

그림 11. 발몽에 대한 트루벨 부인의 ‘감정적 어조’ 변화  
Figure 11. Emotional tone changes in Mme de Tourvel towards Valmont

발몽은 투르벨 부인의 사랑을 얻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만, 리베르탱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르벨 부인과 헤어진다. 3부에서 발몽의 ‘감정적 어조’의 수치가 낮아진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메르퇴유 부인은 투르벨 부인을 향한 발몽의 감정 변화를 읽고,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발몽에게 알려 준다. 발몽은 사랑을 연기하다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메르퇴유 부인은 그러한 발몽을 지켜보며 투르벨 부인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냉철함과 판단력을 앞세우며 이성을 중시했던 두 인물은 모두 감정에 굴복하며 소설의 끝에서 비극을 맞게 된다. 신앙심과 도덕성이 강했던 투르벨 부인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병들어 죽음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림 12가 나타내듯이 1부부터 4부까지 발몽과 메르퇴유 부인이 주고받은 편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그들의 ‘감정적 어조’가 ‘분석적 사고’를 압도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편지 초반에는 이성이라는 일종의 탈을 쓰고 성적 방종이라는 방식으로 감정을 왜곡되게 분출하지만, 후반에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번민하면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그림 12와 같은 결과는 한편으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가 리베르탱을 통해 감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서간체’라는 문학적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당스니 기사가 메르퇴유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편지”는 “감정의 온갖 움직임을 따른다”[3]고 적었듯이, 서간체 소설은 인물의 다양한 감정과 심리를 보여주는 문학 형식이다. 라클로가 영향을 받은 사무엘 리처드슨 Samuel Richardson의 『파멜라 Pamela』와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Lousseau의 『신 엘로이즈 Julie ou la Nouvelle Héloïse』 모두 서간체 형식의 소설로 ‘감정’의 문제에 천착했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LIWC Analysis

DATASET    DICTIONARY    CATEGORIES    SEGMENTATION    RESULTS

Filename	Segment	WC	Analytic	Clout	Authentic	Tone
1부_메르퇴유가 발몽에게.pdf	1	5320	45.79	59.72	38.72	47.89
2부_메르퇴유가 발몽에게.pdf	1	11947	34.13	30.91	53.68	40.77
3부_발몽이 메르퇴유에게.pdf	1	3229	18.15	58.32	34.46	25.42
4부_메르퇴유가 발몽에게.pdf	1	5018	45.28	41.45	57.71	39.06
1부_발몽이 메르퇴유에게.pdf	1	10420	37.57	24.11	54.57	43.87
2부_발몽이 메르퇴유에게.pdf	1	8425	41.85	50.09	38.13	50.67
3부_발몽이 메르퇴유에게.pdf	1	8996	39.44	21.84	58.4	45.93
4부_발몽이 메르퇴유에게.pdf	1	8691	37.05	32.44	70.99	43.99

그림 11. 메르퇴유 부인과 발몽의 분석적 사고와 감정적 어조  
 Figure 11. Mme Merteuil and Valmont’s Analytical Thinking and Emotional Ton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감정을 비웃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리베르탱의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라클로는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을 중시하면서 감정을 배척하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성에 의한 감정의 통제 및 억압은 오히려 모순적인 방식의 형태로 분출된다는 것, 그리고 감정을 이성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낭만주의의 도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문학적 주제에 대해 도구를 이용한 계량적 접근이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객관적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IWC 22와 Voyant을 사용하여 작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한 관계』에서 리베르탱의 화신인 발몽과 메르퇴유 부인의 리베르티나주는 그들이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키워드 ‘love’와 ‘time’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발몽이 트루벨 부인에게 보낸 편지들과 메르퇴유 부인에게 보낸 편지들은 모두 ‘love’를 중심 테마로 하고 있지만, 전자에서는 감정적 어휘들이, 후자에서는 전략적 어휘들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메르퇴유가 보낸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는 ‘time’으로서 ‘love’보다 빈도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작가 라클로는 결국 ‘사랑’과 ‘질투’라는 감정 앞에 무너지는 발몽과 메르퇴유 부인을 통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풍미했던 ‘이성’을 비판하고 ‘감정’의 중요성을 예고하였다. 라클로가 이처럼 ‘감정’의 문제에 천착했다는 사실은 작품 내내 주요 인물들의 ‘감정적 어조’가 ‘분석적 사고’를 압도했다는 객관적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인문학이 큰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분석 도구를 활용한 문학 연구는 여전히 낯설다. 수량화가 문학적 가치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더 많은 문학 데이터를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

용하여 문학 연구에서 디지털 도구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정량적 연구가 정성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입증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 References

- [1] Y.D. Kang,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Contents Model using Digital Software Program, *Global Cultural Contents*, No. 29, pp. 1-17, 2017.
- [2] J.Y. Min, "A case study of Digital humanities lecture on Marcel Proust's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4, pp. 269-275, 2023. DOI :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269>
- [3] D.L. Chodelos, translated by I. Ch. Park, *Les liaisons dangereuses*, Literature & Thought, 2003
- [4] S.Y. Im, "Comparison of leaders' non-behavioral linguistic characteristics by gender: A case of new media content analysis using LIWC-22",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30, No. 6, pp. 1-19, 2023. DOI : <http://dx.doi.org/10/21052/KCMR.2023.30.6.1>
- [5] J.Y.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Context and CEO's Use of Psychological Words in Speeches: The Application of K-LIWC to POSCO Cas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4, No. 4, pp. 759-783, 2011. DOI : 10.24230/ksiop.24.4.201111.759
- [6] J.W. Lee, J.H. Oh, J.S. Jung, C.H. Lee, "Counselor-Client Language Analysis Using the K-LIWC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9, No. 5, pp. 2545-2567, 2007.
- [7] A. Gill and J. Oberlander, "Taking care of the linguistic features of extroversion," *Proc. of the 24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pp. 363-368, 2002.
- [8] M. R. Mehl, S. D. Gosling, and J. W. Pennebaker, "Personality in its natural habitat: Manifestations and implicit folk theories of personality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0, pp. 862-877, 2006. DOI: 10.1037/0022-3514.90.5.862
- [9] A. Koutsoumpis, J.K. Oostrom, D. Holtrop et al. "The kernel of truth in text-based personality assessment: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Big Five and the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LIWC)", *Psychological Bulletin*, Vol. 148, pp. 843-868, 2022. DOI : <https://doi.org/10.1037/bul0000381>
- [10] J.W. Pennebaker, and A.K. Laura, "Linguistic styles: Language use as an individual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pp. 1296-1312, 1999.
- [11] M. Liu, Y. Wu, D. Jiao, M.S. Wu, and T. Zhu, "Literary intelligence analysis of novel protagonists' personality traits and development", *Digital Scholarship in the Humanities*, Vol. 34, No. 1, pp. 221-229, 2019. DOI: 10.1093/llc/fqy020
- [12] S.H. Choi, "You Know No Rules of Charity": A Corpus Analysis of 'Love' in William Shakespeare's *Richard III* Using Voyant Tools", *Journal of British and American Studies*, Vol. 60, pp. 89-125, 2024. DOI : <http://doi.org/10.25093/ibas.2024.60.89>
- [13] S.Y. Yun, "Re-reading, Close Reading and Distant Reading of Literary Texts: Analysis of *Robinson Crusoe*(1719) and *Foe*(1986) throug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Vol. 68, pp. 101-132, 2023.
- [14] A. Miller, "Text mining digital humanities projects: Assessing content analysis capabilities of voyant tools", *Journal of Web Librarianship*, Vo. 12, No. 3, PP. 169-197, 2018. DOI : <https://doi.org/10.1080/19322909.2018.1479673>
- [15] H. Hendrigan, "Mixing digital humanities and applied science librarianship: Using Voyant Tools to reveal word patterns in faculty research",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anship*, Vol. 91. 2019. DOI : <https://doi.org/10.29173/istl3>
- [16] M. Awasi, and A. Khalid, "Memory Study in *The Danish Girl* (2000) by David Ebershoff Through Voyant Text Mining Tools: A Digital Humanities (DH) Study", *Forman Journal of Humanities*, Vol. 1, No. 1, pp. 41-63, June 2023.
- [17] H. Kim, "Digital Humanities - Cooperative Scheme between Humanities and Cultural Contents -", *Humanities Contents*, No. 29, p.12, 2013.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HTP-2024-RS-2023-00254129)